

보드게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소감

선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질수 있는 시간이였다고 느꼈고 정말 재밌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좋았다 또 그 보드게임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주는거 같고 원리를 쓰게하는 게임인거 같아 좋았다. 마치 움직이지 않던 나의 뇌 세포들이 간만에 일어난느낌이였다 ㅋㅋ.

하지만 그게임은 개선할점이 많지 않아 있는거같다. 농축을 쓸수있는 기회가 늘어나거나 길 조각들을 판위에서 붙였다 떼수있게 만든다거나... 양튼 좀더 개선하면 더좋은 게임이 될거같다.

네 그럼 지금까지 (혜민의의 소-감-문 이였습니다
제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셔요!!

역사 보드게임 한 날

오늘 우리반에서 역사보드게임을 했다.
저번에 한 것과 똑같지만 다른 점이 많았다.
이 보드게임은 남현동 대공무실을 배경으로
만든 보드게임이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선생님이 PPT로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셨다.
다른 점은 별로 없었다. 출구가 있다는 것을
빼고 말이다. 이 보드게임을 빨리 사고 싶다.
이 보드게임은 석 2조인 것 같다.

오래하면 재미와 역사를 한번에 잡았기
때문이다. 선생님! 다음에는 더 오래
오래 계시면 좋겠다.

- 6-4반 이은솔 -

오늘은 저번에 오셨던 보드게임을 했던 선생님과 새로운 선생님께서 오셨다.
오늘은 어떤 보드게임과 어떤 수업을 하게 될까 기대가 되었다. 오늘은 역사
보드게임을 하게 되었다. 남영동 대공문실의 대한 보드게임이었다. 남영동 대공문실
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고문을 시킨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박종철이다. 죄없는 사람을 고문시키다니 정말 안타깝다.
취조실에 데려가서 물고문을 시켰다는데 끔찍하다. 박종철의 죽음으로 사위를 하다
소주탄에 맞아서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죽고 말았다. 너무 화가 나는 것 같다. 이 이야기
를 관련하여 만든 게임이 이게임(?)이다. 사람들을 다 구한 뒤 탈출하는 게임이다. 타일
을 바꾸며 길을 가면서 하는 것이다. 캐릭터마다 능력이 있어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길이 잘 연결된 곳에 구할 사람이 있어서 쉽게 구하고 탈출하였다. 1등을 하니
정말 뿌듯하였다. 그리고 이 게임의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정말 만족하는 게임
이었고 불만도 없었다. 타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이다. 물론 남영동 대공문실의 대해
서도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 정말 즐거운 날이었다.

오늘 보드게임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들이 오셨다.
이 보드게임은 옛날 6.10 민주항쟁때 박종철 학생과 이한열 학생이
살제르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드 게임이다. 이한열 학생의
이야기는 별로 들어가지 않고 박종철 학생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남양동대 공판실이라는 곳에 갇혀 계실때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드 게임이다.
박종철 학생은 교도관들이 방안에 있는 욕조에 손, 발을 묶고 할줄만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욕조에 놓아서 물고문을 하였지만 교도관들은 박종철 학생이 책상에서 여기저기 하고 있었는데
책상을 탁하고 치니가 으 하면서 쓰러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자가 그방에 들어가
진실을 밝혔는데 그 진실이 물고문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고문을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무애유 없이 운동을 하였다고
가득 없을때 고통을 자신들이 똑같이 당한게 통쾌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다.
오해나 하면 위사람들이 시켜서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불쌍하다.

-서연-

오늘 보드게임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들이 오셨다.
이 보드게임은 옛날 6.10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였다.
주인공은 박종철 서울대 학생 이었다.
박종철 학생이 죽음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경찰이 고문하다가 책상을 탁! 쳤는
데 억! 하고 죽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다. 경찰들의 변명.
진짜 죽은 이유는 물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보드게임은 박종철 학생처럼 우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 갇혀서 돌아다니면서
카드 속 주인공들을 찾다가 다 찾으면 출구로 나와야 한다.
그럼 이기는 것이다. 근데...
우리 모듬은 김명규가 아파서 나, 서연이, 조준성 이렇게 3명이서 했다.
그런데 내가 이겼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초콜릿도 주셔서 재미있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해보니 재미있었고.. 업그레이드가 잘됐으면 좋겠다.
내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 고쳤으면 좋은 점은
아이들 (역사를 배운 아이들 제외)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재미있었다."

박한결

오늘 우리는 3교시에 역사 보드게임을 했다. 처음에는 먼저 박종철(님)의 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 박종철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또 아팠을지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역사 보드게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임? 저번하고 거의 비슷한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교도관이 생겼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나의 이해력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ㅠㅁㅠ 그래도 이제 도움원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시작했는데, wow.. 솔직히 이 게임 조각? 들이 하나하나 다 분리가 되있어가지고,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다. ㅎㅎ 먼저 우리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순서를 정했는데, ㅎㅋ.. 내가 마지막이라니.. ㅠㅁㅠ 진심 완전 슬펐지만, 이제 게임을 시작했다. 근데 김민준이 처음부터 도움카드를 찾아서 좀 당황스러웠긴 했다만, 나도 나의 도움카드를 찾아서 열심히 잘 보드게임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났는데 우우, 내가 꼴찌~~ 그래도 오늘 보드게임 정말정말 재미있었고, 다음에는 전쟁에 관련된 게임을 했으면 더 좋겠다. 전쟁 중에서도 6-25 전쟁으로 하면 재밌을듯하다

- 최주현 -

오늘 역사 보드게임 만드는 선생님 2분께서 모셨다.

일단 먼저 보드게임에 대한 영상을 보았다.

교훈을 당하는것은 정말 끔찍한것 같다.

그리고 보드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1 하는 방법을 PPT로 보여주셨다. 전에 했었던거라 조금 바뀌었다.

과제도 금방 이해했다. 난 선부, 판사, 시민 활동가, 기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온다. 그리고 시작을 하였다. 초코렛도 먹었다. 당이 떨어져 있었는데 쿿타이밍이다.

일단 순서는 승재, → 시우진 → 은솔 이렇게 했다. 성현이는 같은 팀을 하였다 은솔이가 1등으로 끝이났고 나는 2 번째 승재팀이 3등은 했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PPT 좀 보고 사진찍고 인사하고 갔다.

보드게임 정말 재미있었다

-박서원-

오늘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하였는데, 남북한에 대해
 배웠고, 특히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역사 수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가르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하였다. 특별하신분인데 전에 와주셔서 보드게임
을 소개 해주신 분도 있었다. 그분들이 오늘 하실 것은 보드게임인데
그냥 보드게임이 아닌 역사 보드게임이었다. 역사의 주제는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이한열 등 많은 사람이 숨지고 아픔이었던 일을 주제로 만든
지식 보드게임이었다. 그 보드게임 방식이 처음에 이렇게 가지 않았지만
계속 해보라 보니 알게 되었고 점점 재밌어졌다. 그래서 생각했다.
규칙은 약간 어렵지만 규칙만 간파하면 재밌고 즐거운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단약에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더 나은 주제가
1987년 아님 4.19 혁명이었으면 좋겠다. 단약 게임도
일제 감정기도 관찰할 날다 단약 왔다면 더 재밌을 것 같다.

所 感 文

오늘 2교시 미술시간에 선생님 2분이 오셨다.

보드 게임 가지시고 그 보드 게임은 탈출 게임이다.

개인적으로 탈출 게임을 좋아한다. 근데 이 게임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일단 우리가 할 줄 해야 하는 공간은 남현동 대공문설이다. 게임 룰은 간단하다. 미로 같은 곳에서 길을 만든편어가는 것이다. 도와줘 라는 카드에 있는 인물이나 물건을 가져야 한다. 이것 양쪽에 눈사람이도 있어야 한다. 2번이나 일등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살짝 무섭기로 한에 여기에 들어간 사람 있기 때문이다. (제다가 많다 ~~~) 이렇게 잘못된 것을 목동 걸고 지킨 사람들 때문에 지금에 번추주의가 있는 것 같다. 감사해야 한다.

강민준

2019. 6. 18

박진우

학교에서 우연히에만 보드게임을 만드시는 두분께서 오셨다.
일단 두분께서 만드신 보드게임은 역사에 관한 것이었고,
역사중에서도 1987년에 남영동 대공문실에서 있었던 일을
토대로 만드셨었다. 보드게임은 그곳에 간했다고 가정을 하고
타 돌을 가장 먼저 성공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이로서
된 블록 45개를 가로엔 4줄 세로 5줄씩 놓고, 각자
카드를 뽑은 후 서로 다른 목적지 4개씩 갔다가 문으로
나가면 되는 게임이다. 근에 거기에 인물카드도 나눠주는데
각 인물마다 능력이 있었다. 나의 인물은 카드의 노동력이라는
능력을 쓸수 있었고 길을 한 번 돌을 수가 있었다.
일단 친구들과 함께 역사공부도 되서 좋았고 보드게임도
흥미진진하게 잘 만드셔서 꽤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김민준

오늘은 역사 선생님들이 오셨다.

나는 역사 보드게임이 처음에는 어렵혔는데 게임을 하니깐
나는 역사 게임이 재미있다. 그 게임에 내용은

관문 당하는 것 같은 것이고 박종철 학생이 오해 조영준과
영리교 다음 내용은 잘못은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도 역사 선생님이 오실 때 똑같은
게임을 할 때 그때는 내가 게임

같이 해 주어야 하는 게임이어서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게임

이 되어서 나는 너무 재미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영리교 역사 게임
이런 것 같이 재미있다. 다음에는 다른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교에서 역사 보드 게임
을 하시다 오늘 ~~교에서~~ 역사 보드 게임
을 하기 전에 박종현 인사람이 고
문을 당하다 가족 있다는 것을 보시다 그리고
이걸 다 보고 역사 보드 게임을 하는데 분
명히 해본 적이 있느냐는 데 하시는 ~~방식~~ 방
식이 아예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다시 규칙을 설명 해주신다 근데 나는
규칙은 들어도 복잡 한 것 같아 너 친구들
이 해는 것을 보고 따라 해봐 근데 제
속하고 있는데 규칙도 안 알겠어 너 뭐 재
미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게임이
재미있었던 거 재미있었는데 나는 규
칙을 ~~너무~~ 들어도 안 볼 줄은 모르겠어
이런 나쁜 규칙은 못 해 줄지 몰라도 나는 조
금엔 너도 어리둥절했어 어쨌든 오늘
너무 재미있었다

현수민

< 오늘 소감 >

오늘은 역사 보드게임을 했다. 역사 보드게임을 진행하신 분은 민주 인권 기념 사업을 하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동영상 보니까 좀 으스스했다. 지금은 기념으로 바뀌었다. 보드게임을 하니 너무 재밌었고 남영동 대공분실을 보드게임으로 탈출하니까 스릴있었다. 6월 민주항쟁 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드게임을 해서 재미있었지만 규칙을 좀 쉽게 하시면 완벽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맛있는 초콜릿을 먹어서 좋아기 때문이다. 그 보드게임이 바블리 시루에 나오셔서 사시면 좋겠다. 바블리 남영동 대공분실(현)민주인권기념관이거의 종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 오승재 —

역사보드게임 소감문

오늘 역사보드게임을 만든 신분이 정말 아꼈다. 제번에
 도 비슷한보드게임을 해왔던 것같은데 이번에는 좀 업
 그레이트가 된다고 한다. 이번 게임 테마는 1987 과
 비슷하게 만든 것 같다. 아무튼 보면 볼수록 점점 명쾌하다
 가 아무 생각도 없어 왔다. 그러다 게임할 수 있는 것을
 주면서 내가 이겨서 핸디캡이 없다면 잘 이해를
 하리 못하져서 필등이 되었지만 나는 내가 코너 필
 등이 되었는지도 무리 이해를 하리 못하겠고 그래서 순서
 도 뒤쪽백쪽이 되었다. 게임 자체도 재밌었고 구상도
 조만간 리만 이직률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고
 다른 사람들은 칼보르젝기만 나는 되게를 이어려웠것
 다.

① = 시바트 게임 리소스

나는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갔다.

그런 학교에서 시바트 게임을 하는 날이었다.

4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내 심정 무지했다.

신생님 과 안... 그리고 먼 지역... 공복...이다.

그리고 신생님이 시바트 게임을 할 때... 다이어제...이다.

게임이 너무 재미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 시바트 게임

테스트해 주세요

캐릭터를 그려주세요

시바트 게임... 신생님... 다이어제...
캐릭터를 그려주세요...
시바트 게임... 다이어제...

은 우리 6학년4반이 또다른 새등분들이었다.
그분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도
하시고 그때 공을받아 몸이 안좋은
분들을위해 도와주고 보드게임을 만들어
어떤가르쳐주는 분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수업은 그분들이 직접인도신
보드게임을 소개드라고 게임드라고
이야기하는 수업이나 어떤 보드게임
방법도 권해주었던 보드게임과 방법은 같지만
권 보드게임에 더욱 업그레이드한 버전의
보드게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전에
방법은 여러가지만 권보드게임보다는 재미있었다.
또한 다음에도 오신다면 좋겠습니다.

결심